

종로 귀금속 및 보석산업의 집적 특성에 관한 연구

이수연

경희대학교 지리학과 석사

1.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세계화에 따라 시·공간적인 장벽을 초월하여 경제활동의 공간적 분산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지역에 동일한 산업이 집중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지식기반경제 시대의 도래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지역산업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종로 도심지에 집적한 귀금속 및 보석 산업은 고차 중심지에서 집적경제를 통해 이익을 창출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며, 보석의 가공·디자인·감정 등 지식기반산업으로서 뿐만 아니라 금속공예와 관련하여 문화산업으로서도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귀금속·보석 산업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보석산업의 마케팅 전략이나 세계개혁을 통한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며, 입지적인 측면에서의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귀금속 및 보석산업을 공간과 연계시켜, 우리나라 귀금속 및 보석업체의 지역별 분포 패턴과 함께, 귀금속 및 보석산업이 종로 도심지에 집적하는 요인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규명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2) 연구지역 및 연구방법

본 연구의 대상지역은 행정구역상의 종로구 종로 1, 2, 3, 4가동으로, 귀금속 및 보석산업이 집적하여 나타나는 종로1-4가의 대로변과 함께, 종로3가 단성사 뒤의 봉익동과 종로4가 세운상가 뒤의 예지동 일대를 중심으로 한다. 이 연구를 위하여 문헌들을 참조하여 이론적인 토대를 마련하고, 통계 자료를 통해 귀금속 및 보석산업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종로의 보석 및 귀금속 업체들을 직접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SPSS 10.0을 사용해 분석하였다. 설문조사는 2002년 7월 중순~8월 중순까지 약 1개월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유효한 설문은 사업체용 116개와 직원용 126개였다. 또한 한국귀금속기술협회와 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를 방문하여 인터뷰하였으며, ArcView 3.1을 이용하여 분포 패턴을 지도화하여 나타내었다.

2. 이론적 고찰

1) 집적 이론

집적경제는 크게 정적 집적경제와, 동적 집적경제로 구분할 수 있다. 정적 집적경제는 단위생산비용의 절감을 강조하는 것으로, Marshall, Weber, Hoover의 고전적인 집적이론과 Isard의 입지이론, 경제지리학의 연계연구, Krugman의 지리경제학 등이 포함된다. 동적 집적경제는 집적의 이익을 단순히 경제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이며 제도적인 것으로 보는 관점으로, Porter의 클러스터 이론과 학습지역론 등이 있다(문미성, 2000).

2) 지식기반산업으로서의 귀금속 및 보석산업

산업연구원(1999)은 지식기반산업을 “지식의 획득, 창출, 확산, 활용이 해당산업의 활동에 있어 핵심이 될 뿐 아니라 지식 그 자체와 지식이 체화된 중간재를 생산과정에 집약적으로 투입함으로써 생산된 재화를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크게 향상시키거나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정의한다(김경환·주성재·김갑성, 2001).

귀금속 및 보석산업은 디자인이 생명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인간의 지적능력이 활용되어 빛을 발하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보석을 판별하는 보석감정 역시 소수의 전문화된 기술을 요하는 작업으로써 지식기반산업으로서의 가치는 크다고 할 수 있다.

3) 문화산업으로서의 귀금속 및 보석산업

귀금속 및 보석산업은 예술성·창의성·대중성 등이 체화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공예품 등과 관련된 문화산업으로서, 산업연구원(2001)의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문화산업의 범위에 SIC 36910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제품 제조업’이 포함된다(박진수·구문도·신창호, 2001). 그러나 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본다면 제조업 이외에 도·소매에 해당하는 업태도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귀금속 및 보석산업은 대학의 금속공예학과와도 밀접한 연관을 맺고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 이렇게 생산된 작품은 문화상품으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전북 익산의 보석축제와 같이, 귀금속 및 보석이 전시회 관람 등을 통해 지역의 축제에 활용되고 있는데, 이는 문화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인정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 우리나라 귀금속 및 보석산업의 공간적 분포

1) 전국 귀금속 및 보석업체의 현황

표준산업분류 SIC(standard industry classification)에 의하면 귀금속 및 보석관련 산업으로는 SIC 36901의 ‘귀금속 장신구 및 관련제품 제조업’과 SIC 51492의 ‘시계 및 귀금속 제품 도매업’, SIC 52650의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등이 있다. 이들 각각의 산업을 ‘통계청’에서 발간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보고서」에 의거해, 1999년의 통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귀금속 및 보석업태에 따른 전국 지역별 분포를 보면, 먼저 제조업의 경우는 서울이 57%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부산·울산·경남이 9%로 2위를, 인천·경기(7%)와 전북(7%)이 공동 3위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도매업의 경우는 서울이 차지하는 비율이 85%로, 거의 대다수의 도매업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부산·울산·경남이 9%로 두번째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¹⁾. 마지막으로 소매업의 비중은 서울(27%), 부산·울산·경남(19%), 인천·경기(17%), 대구·경북(12%)의 순으로 비교적 고르게 분산된 경향을 보였다.

한편, 여기서부터는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의 시·도별 단위보다 좀 더 세세한 시·군·구별 분포패턴을 파악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 ‘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의 「전국귀금속보석업소현황(2001)」과 ‘한국귀금속기술협회’의 소장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귀금속 및 보석업체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의 「전국 귀금속보석 업소 현황」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귀금속 및 보석 업체수는 현재 10,971개 업체(2001년 기준)이다²⁾.

1) 서울 도매상은 종로구 봉익동·예지동과 중구 남대문로 일대, 부산 도매상은 진구 범천동 일대, 대구 도매상은 중구 용덕동 일대로, 주로 대도시에 편중되어 나타난다(한국 귀금속보석기술협회, 1994).

2) 협회차원에서의 조사이기 때문에 통계청에서 실시한 전문적인 조사와 비교하여 수적으로 부족하게 파악되었을 수도 있지만, 구와 동 단위의 좀 더 정확한 업체의 위치가 표시되어 구체적인 지역별 분포비율에 있어서는 유용하다고 판단되어 이용하게 되었다.

전국 귀금속 및 보석업체수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서울이 3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그 다음은 부산·경남(16%), 인천·경기(14%), 대구·경북(13%)이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광주·전남(8%), 대전·충남(7%)이 그 뒤를 잇고 있으며, 전북(4%), 강원(3%), 충북(3%), 제주(1%)의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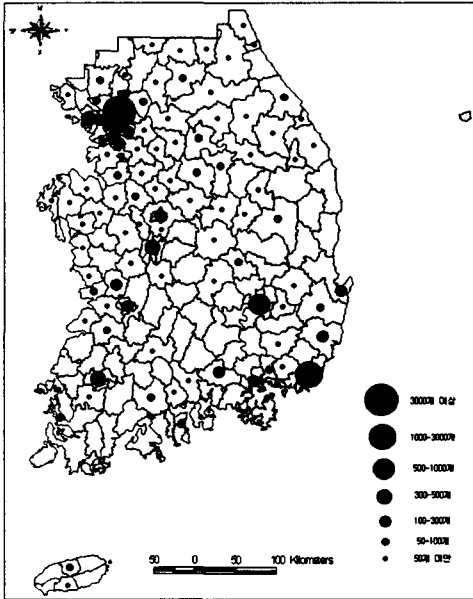


그림 1. 전국 귀금속 및 보석업체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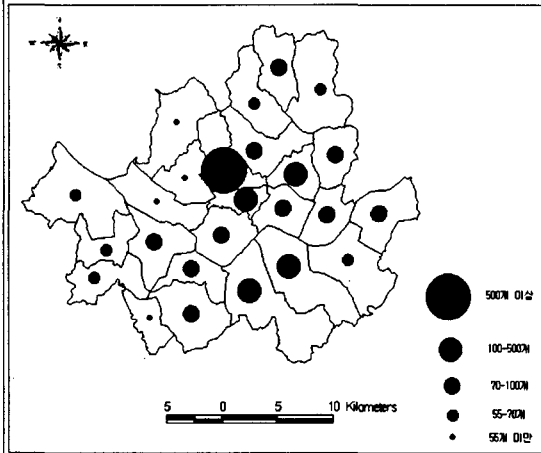


그림 2. 서울시 귀금속 및 보석업체의 구별 분포

2) 서울시 귀금속 및 보석업체의 구별 현황

서울의 귀금속 및 보석업체들은 총 3,329개 업체(귀금속판매업중앙회, 2001)로 이들의 분포를 각 구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그림 2).

가장 많은 업체가 위치한 종로구에는 서울의 42%에 달하는 1,395개 업체가 입지하고 있는데, 특히 봉익동에 750개 업체, 예지동에 600개 업체로 종로구에서도 특정 지역에 집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두번째로는 중구가 195개 업체로 5.9%를 차지하는데, 이 중 남대문이 거의 절반을 넘는 105개 업체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은 서초구(4.1%), 동대문구(3.8%), 강남구(3.6%) 등의 순위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중 동대문구의 경우는 126개 업체들 중 청량리 지역이 절반에 가까운 62개 업체를 차지하고 있다.

4. 종로 귀금속 및 보석산업의 집적 요인

1) 역사적 맥락

종로는 일찍이 상권이 형성된 지역으로, 인근에 배오개시장(현 광장시장)으로 인해 변화했던 예지동에는 조선시대의 석수방골·옥방골이 있었으며, 인근에는 금은세공 등을 하는 공쟁이가 살았다고 한다. 이러한 맥을 이어, 예지동에 1985년 훈정동 일대의 재개발로 인한 상인들이 합류하면서, 세운상가 뒤편의 예지동을 시초로 종로지역에 귀금속 및 보석산업의 집적지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오늘날에는 종로3가 단성사 뒤편의 봉익동에 국내 최대의 귀금속 및 보석산업이 집적되어 있으며, 종로2가의 대로변과 비원으로 향하는 돈화문로까지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2) 생산체계의 특성

종로의 귀금속 및 보석업종을 크게 제조업, 도매업, 도소매업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는데, 귀금속 및 보석업체의 21.6%가 제조기능과 유통기능을 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업체별로 성비의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세공·제조업은 남성의 비율이 높은 데 반해, 도소매업에서는 여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종업원수는 전체적으로 3인이하(82.8%)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대다수의 귀금속 및 보석산업이 소규모에 기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하청을 맺고 있는 업체가 44%로 과반수에 조금 못 미쳤으며, 직영을 두고 있는 경우는 20.7%로 나타났다.

3) 입지

종로에서 사업을 시작한 동기로는 '높은 인지도(29.0%)'와 '업체간 협력(28.4%)'이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별로 종로 2, 3, 4가의 대로변은 주로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도소매업이 많으며, 그 뒤편의 봉익동에서는 도매업과 제조업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종로지역 사업장 입지의 만족도를 몇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면, 노동력 확보에 있어서 전문 기술을 요하는 제조업의 불만족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사업장 확보에 있어서는 대체로 도매와 제조 기능이 집중되어 있는 봉익동 일대에서 불만족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사업장을 이전했던 경험이 있는 업체의 78%가 종로 내에서 이전한 것으로, 거의 대부분이 종로지역 지역 내에서 순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기업간 연계

종로 내에서 협력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는 전체의 67.2%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최대의 집적지를 형성하고 있는 봉익동과 종로3가에서의 업체간 협력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다수의 업체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음으로 인해서 업체간 협력이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종로지역의 제조업체가 생산품을 납품하는 장소는 기타 국내상가(47.9%), 종로 내 상가(42.7%)의 순으로, 종로에서 만들어진 제품이 종로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납품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종로의 판매업체는 상당한 비율(77.0%)을 종로 내 가공업체로부터 공급받는 것으로 나타나, 종로지역 내에서 자급자족의 형태로 강한 네트워크가 작용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5) 노동력 특성

노동력 특성에 있어서, 직원들은 업무형태별로 성별, 연령, 경력, 임금, 기술습득기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판매업에 비해 제조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남성의 비율이 높고 연령과 임금이 높으며 오랜 경력과 기술습득기간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동력 조달은 대부분 '관련업체 및 협회 등 아는 사람의 소개(47.7%)'와 '가족 또는 친지의 소개(39.8%)'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드러나, 비공식적인 경로가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동일업종 내에서 이직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의 과반수이상(54.9%)이 종로내에서 직장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 상당수의 노동력이 종로 내에서 순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제도적 영향

우리나라의 귀금속 및 보석관련 협회 및 조합들 가운데, 한국귀금속기술협회, 한국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 귀금속중개업협동조합, 한국보석감정사협회 등의 주요 협회들이 종로에 위치하고 있다. 귀금속 및 보석관련 협회에 참여하는 종로의 업체들은 39.7%로 나타났으며, 협회에 가입한 목적으로는 '기술·정보교환(54.9%)', '관련업종 사람들과의 인맥형성(26.5%)'이 주요한 요인을 차지하였다. 또한 협회에 참여하는 횟수로는 1년에 1-2회가 전체의 53.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종로 구청에서는 종로 거리의 전문상가들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 96년 귀금속 및 보석산업이 나타나는 지역을 보석의 거리로 특화시키고자 하는 계획을 마련하였다. 최근 들어 서울수도 청계천 복원과 연계해 종로3가 관수동~세운상가~보석상가~광장시장~동대문의류도매센터~동대문등을 잇는 동대문시장 관광특구를 개발할 예정이다 있다(조선일보, 2002).

5. 결론

본 연구는 지리학적 관점에서 귀금속 및 보석산업이 종로지역에 집적하는 요인에 관하여 역사적 맥락, 생산체계, 입지적 측면, 기업간 연계, 노동력 특성, 제도적 영향의 6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종로 도심의 귀금속 및 보석산업 집적지는 제조와 도소매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장소로, 종로 2, 3, 4가의 대로변에서는 주로 도소매업이 나타나며 그 뒤편에서 이러한 활동의 기반이 되는 도매와 제조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여러 가지 집적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종로에 집적한 귀금속 및 보석업체들은 경제적인 비용절감 뿐만 아니라, 대면접촉과 암묵적 지식 등을 통하여 제품 및 생산과정·기술습득 등에 대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으며, 상호간의 신뢰에 바탕을 둔 거래관계와 노동력 수급경로 등에 있어서 비공식적인 네트워크도 중요시되고 있다.

참고문헌

- 권오혁, 2000, 폴 크루그만 모델의 신교역론과 집적경제모델, 월간국토 2000년8월호
- 김경환·주성재·김갑성, 2001, 지식기반산업 집적지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 정보통신부
- 남영우·이희연·최재현, 2000, 경제·금융·도시의 세계화, 다락방
- 문미성, 2000, 산업집적과 기업의 혁신수행력: 수도권 전자통신기기산업을 사례로,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삼옥, 1999, 현대경제지리학, 도서출판 아르케
- 박진수·구문모·신창호, 2001, 문화산업과 도시발전, 산업연구원
- 이정옥, 1996, 소규모 제조기업 집적지역의 형성과정과 지역적 연계에 관한 연구: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을 사례로,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통계청, 1999,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 한국귀금속기술협회, 1994, 우리나라 귀금속산업 정책과제와 개발방향.
- 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 2001, 전국귀금속보석업소현황.
- Amin, A. and Thrift N., 1992, "Neo-Marshallian nodes in global network",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vol.16.
- Harrison, B., Kelley, M.R. and Gant, F., 1996, "Innovative Firm Behaviour and Local Milieu: Exploring the Intersection of Agglomeration, Firm Effects, and Technological Changes", Economic Geography, 72.
- McCann, P., 1995, "Rethinking the Economics of Location and Agglomeration", Urban Studies32.
- Porter, M., 1996, "Competitive advantage, agglomeration economies, and regional policy", International Regional Science Review, Vol.19, No.1&2, pp.85-94.
- Scott, A., 2000, "The Gem and Jewelry Industry in Los Angeles and Bangkok", The Cultural Economy Of Cities, London: SAGE Publications, pp.41-59.